

상담자 경력별 알아차림 방해요소 지각 정도

손 진 회[†]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과정 중에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와 그 내용에서 상담자 경력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상담자 역전이',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상담외적 요인', '상담자 능력 부족' 등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대학상담소, 청소년상담실 및 사설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자 총 173명(초급, 62명, 중급 70명, 고경력 상담자 41명)이었다. 연구 결과, '상담자 역전이',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군은 초급과 고경력의 상담자간 알아차림 방해요소 점수에서 차이가 있었고,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상담자 능력 부족' 군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경력의 상담자 순으로 알아차림 방해요소 점수가 높았다. '상담외적 요인' 군에서만 경력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외 알아차림 방해요소 각 항목별로 상담자 경력별 비교에서는 같은 군집에 속한 항목일지라도 경력간 차이가 나는 정도가 달랐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차림 능력 향상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상담자 발달수준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알아차림, 알아차림 방해요소, 상담자 발달수준

손진회는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손 진 회, (121-742) 서울시 신수동 1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전화 : (02) 705-8273 E-mail : windsjh@sogang.ac.kr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예민하게 잘 알아차리는 것은 상담자 개입의 기초조건으로서(김계현, 1998), 나아가 상담자가 자신을 도구로 삼아 내담자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김계현, 1998; Beier, 1966; Kiesler, 1982; Sullivan, 1954). 그런 까닭에 상담자 교육 분야에서 상담자의 알아차림¹⁾은 중요한 교육 내용 중의 하나로 관심을 받아왔고(김계현, 1998; 문수정, 1999; 심홍섭, 1998; Holloway, 1995;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Stoltenberg & Delworth, 1987), 상담자의 알아차림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구조화된 프로그램들이 제안되고 그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한편, 상담자의 알아차림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민감해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담자 교육 분야의 다른 일각에서 함께 있어왔다(예: 김계현, 1998; 손진희, 김계현, 2001; Bulmer, 1975; Cormier & Cormier, 1998; Egan, 1994; Kagan, 1980; Long, 1996; Nutt-Williams & Hill, 1996; Nutt-Williams, Judge, Hill, & Hoffman, 1997; Tyber, 1992). 알아차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자에게 알아차림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²⁾들을 함께 줄여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논의 이외에 거의 없는 형편이다(손진희, 김계현, 2001). 이에 손진희와 김계현(2001)은 우리나라 상담자들이 상담과정에서 주로 경험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추출하고, 추출된 요소에 대해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즉, 이들은 상담자 경력별로 초급, 중급, 고급 상담자 각 10씩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면접방법을 통해 52개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상담자 역전이’ 군,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 군,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군,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군, ‘상담외적 요인’ 군, ‘상담자 능력 부족’ 군, ‘상담자 미성숙’ 군 등 7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부록 참조).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추출만 이루어졌을 뿐, 이들 알아차림 방해요소 각각으로부터 상담자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 못하였다. 다만 상담자 경력에 따라 그리고 개인별로 상담자들이 보고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 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통해서 알아차림 방해요소가 영향을 주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여, 이를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상담자의 알아차림 능력은 그 경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계현, 1998; 문수정, 1999; 심홍섭, 1998; Loganbill et al., 1982; McNeill, Stoltenberg, & Pierce, 1985; McNeill, Stoltenberg, & Romans, 1992; Reising & Daniels, 1983; Stoltenberg

1)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아차림’이란 용어는 국내에서 게슈탈트 상담이론 개념인 ‘awareness’ 용어에 대해 김정규(1995)가 번역해서 사용하였고, 상담자 교육과 관련해서 김계현(1998)이 처음 사용하였다.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알아차림 용어를 상담자 교육 맥락에서 사용하는 바, 김계현 이후로 일련의 상담자 교육 연구에서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알아차림의 의미는 과거나 미래의 것을 떠나서 현재에 자신이나 타인과 관계된 생리, 감각, 감정, 인지, 지각 그리고 행동 차원 등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 그대로 파악하고 인지하여 이를 명명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상담자로 하여금 상담 과정에 몰입하여 자신과 내담자, 상담자-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명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인 요인

& Delworth, 1987). 이와 마찬가지로 상담자들이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경험하는 정도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일찍이 상담자 교육 방법 중 하나인 슈퍼비전 이론가들은 일찍부터 상담자들이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제안하여 왔다(김계현, 1998; Hogan, 1964; Loganbill et al., 1982; Stoltenberg, 1981; Stoltenberg & Delworth, 1987). 상담자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방법을 구안하고,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다. 그런 점에서 알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나 내용이 상담자 경력별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된다면, 알아차림 교육에 있어서 상담자 발달 단계를 고려한 개입을 구안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담자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 알아차림 방해요소를 경험하는 정도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손진희와 김계현(2001)이 추출한 알아차림 방해요소가 얼마나 적절한지 상담자 발달이론 맥락에 의해서 검증하는 과정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경력별로 알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의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우리 나라 상담자들은 경력에 따라 알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와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조사 당시 실무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거나 상담경험이 있는 상담자 총 173명(초급 62명, 중급 70명, 고급 41명)이 참여하였다.

상담자들의 경력구분은 상담을 시작한 이후의 경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초급 상담자는 상담경력 3학기 이하이거나, 교육경력 학기수가 3학기 이하이거나, 슈퍼비전 횟수(개인 슈퍼비전 받은 횟수 + 집단 슈퍼비전 발표 횟수)가 10회기 이하이거나, 상담회기 경험 30회기 이하인 자 중 최소 2개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다. 고급 상담자는 상담경력이 10학기 이상이고, 교육받은 학기수가 8학기 이상이며, 슈퍼비전 횟수(개인 슈퍼비전 받은 횟수 + 집단 슈퍼비전 발표 횟수)가 30회기 이상, 상담회기 200회기 이상 경험자 중에서 3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로 하였다. 중급 상담자들은 초급과 고급에 속하지 않은 상담자들로 구성되었다.

상담경력 구분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으나, 대부분 상담경력, 교육경력, 슈퍼비전 경력, 상담회기를 그 핵심기준으로 삼고 있다(예: 류진혜, 1999; 문수정, 1999; 심홍섭,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경력기준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참조하되 상담 슈퍼비전 경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예컨대, 선행연구에서는 슈퍼비전 경험을 반영하되 학기수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학기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어 슈퍼비전 회기수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담자격증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의 상담전문가 자격증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 규정에서는 상담심리사와 상담심리전문가의 경우 슈퍼비전 받은 회기수를 10회기, 30회기로 정하고 있다.

연구절차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질문지 제작

손진희와 김계현(2001) 연구에서 추출, 분류된 52개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들을 바탕으로 상담자 알아차림 방해요소 질문지를 제작하기 위해 질문지에 포함될 항목을 선별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추출, 분류된 52개의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들 각각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정을 하였다.

이에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본 자료를 평정할 상담전문가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상담 전문가 중에서 상담실무와 상담자 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정한 이론에 편향되지 않는 상담전문가가 누구인지 반복적인 추천을 통해 가장 많이 추천 받은 사람 3인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선정된 3명의 상담전문가에게 본 연구에 참여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한 후 평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세 사람은 모두 여성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상담실무 및 상담자 교육에 종사해온 경력의 소유자로 본 연구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목록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에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단되었다.

이들 세 명의 평정자에게 상담자 알아차림 방해요소 목록이 제시되었고, 두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문항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도록 안내되었다. 평가 준거는 첫째, 제시된 상담자 알아차림 방해요소 항목이 우리 나라 상담자들이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 것인지, 둘째, 진술된 문장이 구체적이고 명료한지에 대한 평정을 3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다.

문항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상담자 알아차림 방해요소 문항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것은 0점으로 처리하게 하였고, 한 명으로부터라도 0점을 받는 문항은 목록에서 제외를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진술문의 구체성 및 명료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문항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0점을 받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시켰고, 나머지 1점이나 2점을 받는 문항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하였다.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거나 부적절해서 전면 수정해야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안 반응을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평정자 각각의 평정결과가 다른 2인에게 전달되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두 8개 문항이 문항간 통합이 되거나 제외되었고, 최종 44문항의 상담자 알아차림 방해요소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부록 참조 : 질문지 내용 및 항목)

이렇게 문항을 제외시킨 근거는 문항들이 같은 군집에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통합을 시켜도 원래 군집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알아차림 교육에 주는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다. 그 결과, 손진희와 김계현(2001) 연구의 6군집 한 개 문항과 7군집으로 제시된 ‘상담자 미성숙’ 군에 포함된 문항 중 세 개의 문항들이 제외되었다. 그런 까닭에 원래 7군집에 속해있던 상담자 미성숙 군집으로 묶인 항목들 중에서 ‘내담자가 어떻게 볼까 의식이 될 때’ 항목 하나만 남게 되었다. 이 항목은 평가의식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평정자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상담과정 및 결과 의식’ 군집으로 포함시켰다.

상담자 알아차림 방해요소 문항이 결정된 후 우선 척도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지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약 2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주로 초급, 중급 상담자가 대다수였고, 고급 상담자는 5명이 참여하였다. 질문지는 7점 척도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7점 척도가 상대적으로 표준편차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질문지 실시

질문지가 완성된 후 전국의 각 대학, 청소년상담실 및 사설상담소를 대상으로 연구 협조를 의뢰하였다. 연구 협조를 밝힌 상담소에 총 250여부의 질문지를 우송하였으나 회송된 질문지는 모두 187개였다. 이 중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모두 173개의 질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

전국에서 표집한 상담자 173명을 대상으로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질문지를 실시한 후 질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와 Guttman의 반분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질문지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92이었고, Guttman 신뢰도 계수는 .89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본 질문지에 대한 신뢰도는 꽤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군집별로도 신뢰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6군집 등은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6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5군집은 모두 신뢰도 계수가 .60에 미달되고 있어 각 군집에 속한 문항들이 같은 군집으로 볼 수 있는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항수가 3문항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문항간 상관계수가 어느 한 문항을 제외시킨다고 증가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문항들에 대한 통계적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통계패키지 SPSS/P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상담자 경력에 따른 군집별 알아차림 방해요소의 지각 정도

상담자 경력별로 알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

표 1. 알아차림 방해요소 질문지 군집별 신뢰도 계수

군집명	신뢰도계수	Cronbach α 계수	Guttman 계수
1군집: 상담자 역전이(10문항)		.75	.76
2군집: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11문항)		.75	.70
3군집: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8문항)		.69	.72
4군집: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8문항)		.78	.80
5군집: 상담외적 요인(4문항)		.54	.57
6군집: 상담자 능력 부족(3문항)		.60	.63
전체		.92	.89

표 2. 상담자 경력별 군집의 평균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군집	구분	M(SD)	F	Scheffé 검증 ($p < .05$)
상담자 역전이	① 초급	4.11(.79)	8.74***	①>③
	② 중급	3.76(.80)		
	③ 고급	3.44(.85)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	① 초급	3.74(.71)	8.74***	①>③
	② 중급	3.42(.73)		
	③ 고급	3.13(.77)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① 초급	4.25(.69)	10.77***	①>③
	② 중급	3.89(.77)		
	③ 고급	3.52(.94)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① 초급	4.24(.80)	28.91***	①>②>③
	② 중급	3.69(.84)		
	③ 고급	2.97(.85)		
상담외적 요인	① 초급	4.13(.89)	.33	①=②=③
	② 중급	4.24(1.01)		
	③ 고급	4.11(1.04)		
상담자 능력 부족	① 초급	4.28(.88)	32.58***	①>②>③
	② 중급	3.64(.96)		
	③ 고급	2.80(.86)		

주. *** $p < .001$ 전체(N=173) ① 초급(n=62) ② 중급(n=70) ③ 고급(n=41)

향을 받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각 군집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경력의 상담자 집단 간에 상담자 알아차림 방해요소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상담자 경력별로 차이가 어떤 집단간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Scheffé 사후검증 방법을 적용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2에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가장 먼저, 군집 1인 ‘상담자 역전이’ 군의 방해요소 점수가 상담자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상담자들이 ‘상담자 역전이’ 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지각한 방해 요소 점

수는 통계적으로 $p = .000$ 수준에서 초급($M=4.11$, $SD=.79$), 중급($M=3.76$, $SD=.80$), 고급 상담자 집단($M=3.44$ $SD=.85$)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해본 결과, 초급과 고급 상담자 집단 만 서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고, 중급 상담자 집단은 다른 집단과 구별되지 않았다. 중급 상담자 집단이 초급과 고급 상담자 집단과 구별되지 않은 가운데 초급 경력의 상담자 집단이 고급 경력의 상담자 집단보다 ‘상담자 역전이’군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들이 군집 2인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

의' 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지각한 방해요소 점수는 초급($M=3.74, SD=.71$), 중급($M=3.42, SD=.73$), 고급($M=3.13, SD=.77$) 상담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고, 이는 $p=.000$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는 초급과 고급 상담자 집단만 각각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고, 중급 상담자 집단은 다른 집단과 구별되지 않았다. 초급 상담자 집단이 고급 상담자 집단보다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군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군집 3인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군으로부터 상담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각한 방해요소 점수는 초급($M=4.25, SD=.69$), 중급($M=3.89, SD=.77$), 고급($M=3.52, SD=.94$) 상담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p=.000$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는 초급과 고급 상담자 집단만 서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고, 중급 상담자 집단은 다른 집단과 구별되지 않았다. 초급 상담자 집단이 고급 경력의 상담자 집단보다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군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군집 4인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군으로부터 상담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각한 방해요소 점수는 초급($M=4.24, SD=.80$), 중급($M=3.68, SD=.84$), 고급($M=2.97, SD=.85$) 상담자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p=.000$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초급, 중급, 고급 상담자 집단은 각각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경력의 상담자 순으로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군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이 군집의 경우 상담자

경력간에 점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는 경향을 보였다.

군집 5인 '상담외적 요인' 군으로부터 상담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각한 방해요소 점수는 통계적으로 초급($M=4.13, SD=.89$), 중급($M=4.24, SD=1.01$), 고급($M=4.11, SD=1.02$) 상담자 집단간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담외적 요인' 군 방해요소는 초급, 중급, 고급 상담자 집단에 동일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이 방해요소 군집이 상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는 다른 군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집 6인 '상담자 능력 부족' 군으로부터 상담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각한 방해요소 점수는 초급($M=4.28, SD=.88$), 중급($M=3.64, SD=.96$), 고급($M=2.80, SD=.86$) 상담자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p=.000$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초급, 중급, 고급 상담자 집단은 각각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경력의 상담자 순으로 '상담자 능력 부족'군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이 군집에서도 상담자 경력간에 점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는 경향을 보였다.

상담 경력에 따른 군집내 알아차림 방해요소의 지각 정도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방해를 받는 정도는 각 군집 내에서도 항목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경력별로 구체적인 알아차림 방해요소 항목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1군집 '상담자 역전이' 군에 포함된 상담자 알

표 3. '상담자 역전이' 군 항목의 상담자 경력별 일원변량분석

내 용	구분	M(SD)	F	Scheffé검증 ($p < .05$)
· 내담자의 문제나 특성이 상담자의 것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① 초급	4.27(1.46)	4.78**	①>③
	② 중급	3.70(1.39)		
	③ 고급	3.43(1.46)		
· 상담과 관계없는 상담자의 개인적인 일이나 문제가 떠오를 때	① 초급	3.35(1.39)	.80	①=②=③
	② 중급	3.50(1.47)		
	③ 고급	3.14(1.37)		
·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① 초급	4.50(1.49)	.55	①=②=③
	② 중급	4.39(1.41)		
	③ 고급	4.20(1.42)		
·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① 초급	3.79(1.56)	.88	①=②=③
	② 중급	3.44(1.52)		
	③ 고급	3.56(1.42)		
· 상담자로서 수용하기 힘든 감정을 회피, 부인, 억압해서	① 초급	3.79(1.32)	5.58**	①>③
	② 중급	3.47(1.30)		
	③ 고급	2.88(1.40)		
· 내담자 감정이나 문제에 너무 몰입을 해서	① 초급	3.76(1.33)	3.72*	①>③
	② 중급	3.49(1.38)		
	③ 고급	3.02(1.27)		
· 내담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① 초급	4.18(1.53)	3.90*	①>③
	② 중급	3.70(1.37)		
	③ 고급	3.39(1.46)		
· 역전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될 때	① 초급	4.43(1.48)	3.75*	①=②>③
	② 중급	4.40(1.31)		
	③ 고급	3.73(1.43)		
· 감당하기 힘든 내담자 문제에 압도 되었을 때	① 초급	4.94(1.41)	5.37**	①=②>③
	② 중급	4.70(1.56)		
	③ 고급	3.95(1.56)		
· 불안한지도 모를 정도로 상담자 불안이 심해서	① 초급	2.92(1.45)	8.38***	①>③
	② 중급	2.33(1.34)		
	③ 고급	1.87(.90)		

주. * $p < .05$ ** $p < .01$ *** $p < .001$ 전체(N=173) ① 초급(n=62) ② 중급(n=70) ③ 고급(n=41)

표 4.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 군 항목의 상담자 경력별 일원변량분석

내 용	구분	M(SD)	F	Scheffé검증 ($p < .05$)
· 내담자가 하는 표면적인 말에만 신경을 쓰느라	① 초급	3.89(1.26)	13.25***	①>②>③
	② 중급	3.23(1.47)		
	③ 고급	2.54(1.10)		
· 내담자에 대하여 상담자 나름의 확고한 가설을 가지고 상담할 때	① 초급	4.29(1.40)	3.83*	①>③
	② 중급	3.77(1.36)		
	③ 고급	3.58(1.40)		
· 상담 전에 갖게 된 내담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① 초급	3.77(1.38)	3.79*	①=②=③
	② 중급	3.16(1.33)		
	③ 고급	3.22(1.41)		
· 상담중에 생기는 문제(저항 등)를 내담자 요인으로만 보는 시각 때문에	① 초급	3.52(1.21)	.68	①=②=③
	② 중급	3.24(1.32)		
	③ 고급	3.05(1.40)		
· 내담자에 대해 사전 준비의 부족으로	① 초급	4.56(1.15)	3.86*	①=②=③
	② 중급	4.01(1.42)		
	③ 고급	3.95(1.32)		
· 내담자 문제를 보고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① 초급	3.71(1.41)	3.84*	①>③
	② 중급	3.13(1.56)		
	③ 고급	2.95(1.55)		
· 의뢰된 내담자의 경우 새로 질문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① 초급	3.10(1.29)	4.09*	①>③
	② 중급	2.91(1.46)		
	③ 고급	2.32(1.39)		
· 상담내용을 기록하는 데 신경 쓸 때	① 초급	2.90(1.52)	.42	①=②=③
	② 중급	3.14(1.54)		
	③ 고급	2.95(1.67)		
· 내담자가 전에 얘기한 것을 기억 못해서	① 초급	3.34(1.46)	.07	①=②=③
	② 중급	3.24(1.30)		
	③ 고급	3.29(1.45)		
· 장기사례를 상담할 경우 매너리즘에 빠져서	① 초급	4.08(1.56)	.51	①=②=③
	② 중급	4.26(1.43)		
	③ 고급	3.98(1.46)		
· 내담자를 부정적인 문제 중심으로만 볼 때	① 초급	3.94(1.66)	10.54***	①=②>③
	② 중급	3.49(1.50)		
	③ 고급	2.56(1.18)		

주. * $p < .05$ ** $p < .01$ *** $p < .001$ 전체(N=173) ① 초급(n=62) ② 중급(n=70) ③ 고급(n=41)

아차림 방해요소 항목들이 상담자 경력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3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7개의 항목에서 상담자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상담자들이 상담자 역전이 군집의 아차림 방해요소 항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력별 점수도 살펴보았다. 모든 상담자 집단에서 아차림 방해요인 점수가 4점 이상 5점 대에 이르러 상담자들이 이들 요소로부터 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군집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 군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상담자 경력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4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11개의 문항 중에서 5개 항목에서 상담자 경력별 차이가 있었다. 경력간 차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 군에 포함된 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상담자 경력별로 비교해 보았는데, 항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3군집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군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상담자 경력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8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에서 상담자 경력별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군에 포함된 아차림 방해요소 각 항목들에 대해서도 상담자 경력별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이 군집은 대체로 상담자들의 경력에 상관없이 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른 군집보다 크다고 지적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상담자 경력에 상관없이 상담자들이 상담중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아차림 부족이 내담자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특성이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를 잘 알아차리는 상담자라고 할 때, 상담과정 중 아차림의 문제가 과연 내담자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객관화시키는 문제가 상담자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군집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군에 포함된 상담자의 아차림 방해요소 항목들에 대한 상담자 경력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모두 6개 문항에서 상담자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상담자 경력간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담자 경력별로 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초급 상담자의 경우 그 점수가 4점이 넘는 반면, 중급, 고급 경력으로 갈수록 영향을 받는 정도가 차이를 보이면서 작게 나타나 이 군집의 항목들은 상담자 경력이 높아질수록 보다 쉽게 조절 가능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6군집 ‘상담자 능력 부족’ 군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상담자 경력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개 문항 모두에서 상담자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상담자 능력 부족’ 군에 포함된 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3개 문항 중 ‘상담에서 필요한 아차림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몰라서’ 문항은 상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약했고, 두 문항에서는 고급 상담자를 제외한 초급, 중급 경력의 상담자들의 경우 꽤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상담 경력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표 5.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군 항목의 상담자 경력별 일원변량분석

내 용	구분	M(SD)	F	Scheffé검증 ($p < .05$)
· 내담자와 입장 및 경험이 달라서 이해가 안될 때	① 초급	4.19(1.29)	3.76*	①>③
	② 중급	4.04(1.48)		
	③ 고급	3.44(1.47)		
·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담자와 다를 때	① 초급	4.45(1.33)	8.77***	①=②>③
	② 중급	4.03(1.37)		
	③ 고급	3.31(1.33)		
· 내담자와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를 때	① 초급	3.63(1.36)	1.41	①=②=③
	② 중급	3.41(1.50)		
	③ 고급	3.15(1.42)		
· 내담자가 방어적이거나 속일 때	① 초급	4.60(1.51)	4.52*	①>③
	② 중급	4.03(1.38)		
	③ 고급	3.78(1.46)		
· 내담자가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혼란스럽게 얘기를 할 때	① 초급	4.95(1.30)	5.02**	①>③
	② 중급	4.34(1.45)		
	③ 고급	4.15(1.42)		
· 내담자와 관계형성이 잘 안되어 있을 때	① 초급	4.44(1.36)	2.78*	①>③
	② 중급	4.13(1.72)		
	③ 고급	3.68(1.66)		
·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상황적 정보가 없을 때	① 초급	4.19(1.53)	1.31	①=②=③
	② 중급	3.96(1.54)		
	③ 고급	3.71(1.40)		
· 내담자와 상담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① 초급	3.56(1.52)	2.32	①=②=③
	② 중급	3.17(1.32)		
	③ 고급	2.98(1.51)		

주. * $p < .05$ ** $p < .01$ *** $p < .001$ 전체(N=173) ① 초급(n=62) ② 중급(n=70) ③ 고급(n=41)

상담 기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예상을 지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상담자들은 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상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담

자 발달과 관련한 슈퍼비전 이론가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6.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군 항목의 상담자 경력별 일원변량분석

내 용	구분	M(SD)	F	Scheffé검증 ($p < .05$)
· 상담을 잘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① 초급	4.27(1.39)	10.54***	①=②>③
	② 중급	3.61(1.44)		
	③ 고급	2.98(1.39)		
· 내담자 말을 들으면서 다음 반응을 생각하느라	① 초급	4.61(1.51)	24.69***	①>②>③
	② 중급	3.73(1.55)		
	③ 고급	2.54(1.25)		
· 상담중에 내담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 및 기법 등을 적용시키려고 할 때	① 초급	3.74(1.45)	5.60**	①>③
	② 중급	3.27(1.24)		
	③ 고급	2.83(1.46)		
· 슈퍼비전이나 사례발표를 의식하고 상담할 때	① 초급	4.11(1.63)	.03	①=②=③
	② 중급	4.10(1.50)		
	③ 고급	4.17(1.54)		
· 상담시간 중 상담자의 특정한 의도나 계획에 너무 매일 때	① 초급	4.31(1.56)	2.43	①=②=③
	② 중급	3.96(1.35)		
	③ 고급	3.66(1.59)		
· 상담자는 '어떠해야 한다'는 상담자 역할에 지나치게 매일 때	① 초급	4.52(1.47)	24.20***	①>②>③
	② 중급	3.77(1.34)		
	③ 고급	2.54(1.45)		
· 내담자가 어떻게 볼까 의식될 때	① 초급	3.77(1.42)	11.30***	①=②>③
	② 중급	3.29(1.37)		
	③ 고급	2.46(1.29)		
· 상담을 이끌어 가는 데 너무 신경 쓸 때	① 초급	4.61(1.36)	26.03***	①>②>③
	② 중급	3.71(1.37)		
	③ 고급	2.61(1.43)		

주. ** $p < .01$ *** $p < .001$ 전체(N=173) ① 초급(n=62) ② 중급(n=70) ③ 고급(n=41)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상담자들은 경력에 따라 알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의 방해요소 군에서 상담자 경력간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는 상담자가 상담경험이 쌓일수록 상담기술이 향상된다는 상담자 발달이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아차림 능력과 관련해서 보자면 상담자들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신이나 내담자에 대해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김계현,

표 7. '상담자 능력 부족' 군 항목의 상담자 경력별 일원변량분석

내 용	구분	M(SD)	F	Scheffé검증 ($p < .05$)
· 사례에 대한 이해(문제원인, 역동)의 부족으로	① 초급	4.97(1.21)	11.44***	①=②>③
	② 중급	4.50(1.43)		
	③ 고급	3.63(1.32)		
· 상담에서 필요한 알아차림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몰라서	① 초급	3.10(1.45)	11.55***	①>②>③
	② 중급	2.47(1.33)		
	③ 고급	1.85(.96)		
· 상담관련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① 초급	4.79(1.28)	24.23***	①>②>③
	② 중급	3.96(1.37)		
	③ 고급	2.92(1.35)		

주. *** $p < .001$ 전체(N=173) ① 초급(n=62) ② 중급(n=70) ③ 고급(n=41)

1998; 문수정, 1999; 심홍섭, 1998; Loganbill et al., 1982; McNeill et al., 1985; McNeill et al., 1992; Reising et al., 1983; Stoltenberg et al., 1987).

다만, '상담외적 요인' 군의 경우에서만 상담자 경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점수도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통해 경력을 통해서 상담외적 요인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상담자들의 자기 관리를 포함하는 상담과정 이외의 요인들이 내적인 요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알아차림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상담외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군과 '상담 능력 부족' 군에 포함된 문항들에서 경력간에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손진희와 김계현(2001)은 상담자들로부터 추출한 알아차림 방해요소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상담자 경력별로 경험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초급 상담자들의 경우 상담자 자신에게 초점이 감

으로써 생기는 문제와 상담능력과 관련된 항목 등을 방해요소로 많이 거론하였다고 했는데, 직접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이들 군집에 포함된 문항들에서 경력간에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고급 상담자들도 알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는데, 특히 몇 가지 영역에서는 영향을 받는 정도가 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외적 요인' 군, '상담자 역전이' 군,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군에 포함된 항목들에서 방해를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는 경력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그 점수도 높은 편이었다. 이는 고급 상담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청 능력이나 알아차림 능력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논의(김계현, 1998; Egan, 1994)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특히 문수정(1999)은 슈퍼비전에서 고급 상담자들의 알아차림 교육내용 요구도가 높았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방해요소들의 영향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넷째, 중간 수준의 상담자들의 결과가 분명치

않음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애초 상담자 분류에 사용한 준거에 있어서, 중급 상담자들은 초급과 고급 경력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상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담자 발달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에서 다양한 경력수준에 따른 수련생의 특징은 초보 수련생과 인턴수준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pner & Roehlike, 1984; Reising et al., 1983; Wiley et al., 1986; Worthington, 1984; Worthington & Stern, 1985). 우리 나라의 심홍섭(1998)의 연구에서도 교육내용 중 알아차림 영역에서 초급과 고급 상담자 집단만 구별이 있었고 중급 상담자 집단은 구별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 결과와 양상이 비슷하였다. 이는 중간 수준의 상담자들이 자신감과 좌절감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상담자들이 대부분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목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손진희와 김계현(2001)은 상담자들로부터 낮은 빈도로 거론된 요인들일지라도 알아차림 방해요소 목록으로 모두 포함을 시켰었는데, 본 연구 결과 손진희가 추출한 알아차림 방해요소 추출이 적절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자들은 평소 이 항목들이 알아차림 방해요인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으나, 질문지에 제시된 방해요소 목록을 통해서 비로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상담자 교육과 관련해서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바이저나 프로그램 리더들에게 상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그 방법을 구안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다. 상담자들은 그 발달 수준에 따라서, 혹은 같은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특성

의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방해요소의 내용이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상담자들을 차별적으로 진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알아차림 방해요소 질문지는 상담 교육자들이 슈퍼비전이나 기타 다른 교육 장면에서 수련생의 알아차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우리 나라 상담자들이 경력에 따라 경험하는 알아차림 방해요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아직 알아차림 능력이 미흡한 초급 상담자들에게 자신들이 의식해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자신이 체험하는 것에 대한 예민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중급 이상의 상담자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상적인 알아차림 방해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이들에게 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 개인적으로는 경력이 높을수록 슈퍼비전 참여 비율이 낮을 수 있는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틀로써 활용한다면 자가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탐색적 연구로 출발한 바, 연구 결과에 대해 보다 확증적으로 언급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알아차림 방해요소 내용은 상담자들이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그러하다는 지각을 보여주었을 뿐, 알아차림 방해요소들이 상담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알아차림 방해요소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적용하였는데, 초급, 중급, 고급 상

담자 집단의 숫자가 동일하지 않아 일원변량분석을 적용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가 상담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밝혀질 필요가 있다. 알아차림 방해요소의 경험 정도가 상담 효율성이나 기타 다른 변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알아차림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자 교육에 보다 실제적인 지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질문지는 상담 실제에 대한 실용적인 (practical) 측면을 위해 개발된 바, 상담자 알아차림과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화되고, 세련된 도구로 다듬어질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계현 (1998). 상담심리학 (개정 증보판). 서울: 학지사.

류진혜 (199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인지 기술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수정 (1999). 상담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진희, 김계현(2001).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추출 및 분류 연구. 상담학연구, 2, 163-180.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eier, E. G. (1966). *The silent language of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Bernard, D. H. (1979). Toward a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counseling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9, 60-68.

Bullmer, K. (1975). *The art of empathy: A manual for improving accuracy of interpersonal perception*.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Cormier, S., & Cormier, B. (1998). *Interviewing Strategies for Helpers: Fundamental skills and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 Pacific Grove, NJ: Brooks/Cole.

Egan, G. (1994). *The skilled helper (4th ed.)*. Monterey, CA: Brooks/Cole.

Heppner, P. P., & Roehlke, H. J. (1984). Differences among supervisee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Implications for a developmental model of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76-90.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Holloway, E. L. (1995). *Clinical supervision: A systems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Kagan, N. (1980). Influencing human interaction: Eighteen years with IPR. In A. K. Hess (Eds.), *Psychotherapy supervis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262-283). New York: A Wiley-Interscience.

Kiesler, D. J. (1982). Interpersonal theory for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In J. C. Anchin & D. J. Kiesler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pp. 3-24). New York: Pergamon.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3-42.

- Long, V. O. (1996). *Communication skills in helping relationship: A framework for facilitating personal growth*. Pacific Grove, NJ: Brooks/Cole.
- McNeill, B. W., & Pierce, R. A. (1985). Supervisees' perceptions of their development: A test of counselor complexit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630-633.
- McNeill, B. W., & Stoltenberg, C. D., & Pierce, R. A. (1985). Supervisors' perceptions of their development: A test of the counselor complexit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630-633.
- McNeill, B. W., & Stoltenberg, C. D., & Romans, J. S. C. (1992). The integrated developmental of supervis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rocedur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3*, 504-508.
- Nutt-Williams, E., & Hill, C. E.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talk and therapy process variables for novice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70-177.
- Nutt-Williams, E., Judge, A. B., Hill, C. E., & Hoffman, M. A. (1997). Experience of novice therapists in prepracticum: Trainees', clients', and supervisors' perceptions of therapists' strateg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390-399.
- Reising, G. N., & Daniels, M. H. (1983). A study of Hogan's model of counselor development and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 303-315.
- Stoltenberg, C. (1981). Approaching supervision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counselor complexit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9-65.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 and therapis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ullivan, H. S. (1954). *The psychiatric interview*. New York: Norton.
- Tyber, E. (1992).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A guide for clinical training*. New York: Brooks/Cole.
- Wiley, M. O., & Ray, P. B. (1986). Counseling supervision by developmental lev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439-445.
- Worthington, E. L. Jr. (1984). Empirical investigation of supervision of counselors as they gain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63-75.
- Worthington, E. L., Jr. & Stern, A. (1985). Effects of supervision and supervisee degree level and gender o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52-262.

원 고 접 수 일 : 2002. 6.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2. 8. 29

게재결정일 : 2002. 9. 7

The Obstructive Factors of Korean Counselor's Awareness and Counselor's Developmental Level

Jin-Hee Son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bstructive factors of Korean counselor's awareness in terms of their developmental level. Prior to this research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sts of 44 items requiring obstructive factors they could experience in terms of counselor's awareness during sessions, was made.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73 counselors and therapists(22 male and 151 female) from various settings in Korea. All participants were consisted of 62 novice practitioners, 70 more experienced practitioners, and 41 highly experienced practitioners.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is that significant difference in degrees and contents would appear by the counselor developmental level. And Scheffé post hoc tests were used to examine differences in details, appeared across the counselor experience span which was operationalized as novice, more experienced and highly experienced. As a result,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found on 5 clusters: countertransference; counselor's preconception and carelessness; counselor's misunderstanding of client's characteristics and client's attributes; perception of counseling process and result; counselor's lack of competency. In the cluster of external factor regardless of counseling itself, no difference was showed by counselor experience level. Investigating the difference by counselor developmental level in each item belonged to each domain, difference in degrees of influence on counselor's awareness was revealed. This findings suggest that counselor's ability in awareness could make a difference by experience level.

Key Words : awareness, obstructive factors to counselor awareness, counselor's developmental level

부 록

산출된 군집 및 내용·항목 예

군 집	내 용 · 항 목 예
군집 1: 상담자 역전이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에게 유발된 감정문제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 (항목 예: 내담자에 대한 문제나 특성이 상담자의 것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군집 2: 상담자 선입견 및 부주의	상담자의 선입견과 부주의한 요인에 근거하여 내담자를 대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 (항목 예: 상담 전에 갖게 된 내담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군집 3: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 및 내담자 특성	내담자에 대한 이해부족과 내담자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 (항목 예: 내담자가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혼란스럽게 얘기를 할 때)
군집 4: 상담진행 및 결과 의식	상담 진행과정에서 의식되는 부담요인으로 인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 (항목 예: 내담자 말을 들으면서 다음 반응을 생 각 하느라)
군집 5: 상담외적 요인	상담이외의 요인과 관련된 내용 (항목 예: 상담자가 신체적으로 피곤할 때)
군집 6: 상담자 능력 부족	상담자의 상담능력 수준의 문제로 인한 영향과 관련된 내용 (항목 예: 상담관련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군집 7: 상담자 미성숙	상담자의 성숙 수준과 관련된 내용 (항목 예: 상담자의 인간적인 성숙 수준이 낮아서)

주. 출처 : 손진희, 김계현(2001).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알아차림 방해요소 추출 및 분류 연구. 상담학연구, 2, 163-180.